

예술가 창작환경조성

사회 : 김준기 (경희대 겸임교수)

발제 1 :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 개선방안	2
조주현 (창동스튜디오 프로그래매니저)	
사례 1 : 국공립 창작스튜디오/창동스튜디오 운영	21
조주현 (창동스튜디오 프로그래매니저)	
사례 2 : 민간운영 스튜디오/쌈지스튜디오 운영	29
신현진 (쌈지스페이스 큐레이터)	
사례 3 : 농촌지역 폐교활용 스튜디오/창문아트센터 운영	32
박석운 (창문아트센터 관장)	
사례 4 : 개별작가 스튜디오 매핑	41
서송 (작가, 일산오픈스튜디오)	
사례 5 : 부산의 창작촌 운영과 문제점	44
서상호 (부산지역 폐교활용 창작촌 운영작가)	

미술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 개선방안

양건열(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

1)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서울 창동과 경기도 고양에 소재한 국립창작스튜디오 2개, 폐교·산업시설·공공시설 등을 미술창작스튜디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립창작스튜디오는 29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립미술창작스튜디오는 23개로 모두 합하여 54개이다. 미술창작스튜디오는 1998년부터 정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총 29개소를 설립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는 민간기업과 미술관에서 관심을 갖고 조성하기 시작하여 공사립창작스튜디오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고 있다.

<표 1> 전국 국·공·사립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2006. 현재)

비고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립	2	1	-	-	-	-	-	-	1	-	-	-	-	-	-	-	-
공립	29	1	-	1	-	2	-	-	2	4	3	1	3	1	6	5	-
사립	23	2	-	1	-	-	-	-	13	1	1	-	1	1	-	3	-
합계	54	4	-	2	-	2	-	-	16	5	4	1	4	2	6	8	-

<표 2> 설립 연도별 스튜디오 현황

연도별	계	1991년~1995년	1996년~2000년	2001년~2005년	2006년
국립	2	-	-	2	-
공립	29	3	11	12	3
사립	23	2	8	11	2
계	54	5	19	25	5

2)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이들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설립 목적, 지원, 운영 등에서 차이가 있는 편이다. 설립 및 운영주체에 의해 국립, 공립, 사립스튜디오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구분		설립 주체 /운영	명칭
국·공립	문화 관광부	문화관광부/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및 고양 국립미술스튜디오
	지방 자치 단체	서울시/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진안군/입주작가운영위원회	진안미술창작스튜디오
		평창군/입주작가협의회	평창무이미술창작스튜디오
		광주광역시/광주시립미술관	팔각정미술창작스튜디오 양산동미술창작스튜디오
사립	기업	대유문화재단/영은미술관	경안창작스튜디오
		일주문화재단/일주아트하우스	일주아트하우스 스튜디오
		(주) 쌤지/쌤지스페이스	쌤지창작스튜디오
		하나은행/가나아트갤러리	가나아뜰리에
	개인	지역작가	하제마을
		지역작가	문화예술촌 쟁이골

3)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기능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설립목적과 운영방식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동시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1) 작업실로서의 창작스튜디오

국내 대부분의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 경우 작가들은 매우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작업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의 ‘미술창작스튜디오’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주 작가들 간의 만남과 대화를 촉진시키며, 현대미술 개념을 확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열린 공간의 기능을 하게 된다.

(2)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서의 창작스튜디오

생활이 가능한 숙식시설과 함께 거주공간 기능을 확보한 창작공간으로 작가의 장단기 체류가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작업공간을 매개로 하여 비평가, 큐레이터를 비롯해 미술행정가의 방문과 교류, 미술시장에 대한 정보 교류, 미술창작의 다양한 기법과 동향에 대한 이해, 해당 지역의 미술사·미술계 구조 파악, 그리고 해당지역의 문화와 풍습과 함께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창작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예술여행, 작가 성장을 위한 자기계발의 다양한 기회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창작스튜디오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마련이다. 작업실은 창작의 장소이면서 전시장이기도 한 개념적 사유의 흔적들을 방문자들에게 보여주며, 나아가 작가들로부터 창작과 관련한 대화와 때로는 보다 형식화된 강의의 형태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문화적 기능도 동시에 병행하게 된다.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으로는 지역사회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서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예술적 개념과 기량을 발전시키고, 미술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도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사회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자신이 사는 공간에서 미술을 감상하고 다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4) 국제문화교류시설로서의 창작스튜디오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작가들이 자국 또는 외국의 국공립/사립 기관의 초청으로 생활비와 창작비를 보조 받으며 체류하는 장단기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인터내셔널’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의 작가들과의 상호교류, 그 작가들을 위한 미술계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리고 창작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이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오랜 역사와 프로그램을 지닌 외국의 경우에는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교류와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창작활동의 활성화 및 전파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와 일부 사립미술창작스튜디오가 국제문화교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지원정책과 문제점

1) 스튜디오 운영 현황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미술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의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다. 특히 유망한 미술가들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특화된 미술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큰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건립 목적도 다르며, 지원도 들쭉날쭉하고,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적 운영의 부실을 안고 있다.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대안공간적 성격으로 운영되거나 미술관부설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지원근거와 체계가 없어 사업의 발전적 모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인데, 일부 민간 미술창작스튜디오는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폐교 활용 스튜디오의 경우는 접근성이 불편한 지리적,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작가들의 활용이 저조한 곳이 많은 편이다. 하다. 또한 창작스튜디오간 프로그램 정보의 교환 등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개별 스튜디오 운영 및 미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의 체계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술창작스튜디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재원의 부족으로 미술가들의 개인 아틀리에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어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지역미술발전이나 교류를 위한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2) 미술창작스튜디오 미션의 다양성 부족

일반적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대부분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작가들에게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창작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도는 매우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창작공간의 안정적 제공이라는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면 외국의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안정적인 창작여건의 제공이라는 측면보다는 문화교류와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그리고 창작의욕의 고취와 이의 실현이라는 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자국의 작가들과 초빙된 외국의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작업의 정체성을 공고히 함은 물론 작가들 간의 교류와 대화를 통해 보다 더 예술성 높고 독창적인 작품제작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미술창작스튜디오란 일반적으로 미술가들의 작업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창작활동을 위한 제반사항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최근 이러한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개인보다는

공동작업실 개념이 도입되면서 작가들의 상호의견 교환과 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수립되고 있다.

<표 4>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유형	명칭
프로젝트 실현	팔레 드 도쿄, Le Pavillon
국제교류를 통한 자국 작가들의 창작지원	프랑스 AFAA
자국 현대 미술의 국제화	스웨덴 IASPIS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지원	일본 CCA 키타큐슈 일본 아키요시다이 국제 예술마을
도시계획 및 도시발전	일본 교토아트센터
미술이론 및 비평, 전시 기획	네덜란드 De Appel, 프랑스 Magasin
뉴미디어 창작 및 연구	독일 ZKM
레지던스 네트워크	독일 국제아티스트 아트센터 네트워크 협회 Res Arits
지역문화특화 및 문화산업과의 연계	일본의 Artists-in-Residence (AIR) 프로그램

3) 운영경비 지원 부족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개관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문제라 할 것이다. 각 지역마다 미술창작스튜디오 재정 운영과 지원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폐교활용 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지원, 운영경비 지원(무상임대와 유상임대)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의 경우 문화관광부 보조금, 마사회 기금,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각종 문화관련 협회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의 경우 지방비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조성되고 있다.

(1)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2005년도 창동과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비 전액인 1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 창동과 고양 국립스튜디오의 경우 입주작가들의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작업 공간과 부대시설(전시장, 정보자료실, 식당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전기료 및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 창작공간에 대한 유지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학술행사, 종합문화공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하여 2002년 개관부터 해마다 효율적인 운영성과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는 인력과 재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2) 지역미술창작스튜디오

이에 반해 각 지역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운영경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건물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경우,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입주작가들이 부담하는 경우, 입주작가들이 완전히 부담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작가가 부담하는 경우와 이용자 사용료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① 지자체 전액 지원

김해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시비 2억원과 마사회기금 2억원 총 4억원으로 조성지원 되었으며 연간 관리운영비로 1,2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노후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조성비용 외에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유지보수비용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기의 지원액 수로는 스튜디오 운영상 부족한 실정인데 대부분의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이러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금수문화예술마을은 성주군청을 통해 연 1,060만원(연간관리비 560만원, 운영비 5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육청 지원으로 지역청소년 문화체험 교실 경비로 재료비 포함하여 2,5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다. 기본적인 관리운영비용 외에 공동지출경비는 입주작가들 간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② 지자체 일부 지원/입주작가 일부 부담

지자체에서 미술창작스튜디오 건물을 소유한 경우와 폐교의 경우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방교육청에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입주작가에게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임대이지만 운영경비 일체를 포함하여 간혹 건물 보수유지까지 입주작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다.

광주예술창작스튜디오의 양산동스튜디오의 경우 저렴한 비용의 유상임대 방식으로 월 24,000원 임대료를 입주작가가 지불해야 하며,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와 관리비를 입주작가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또한 광주팔각정스튜디오는 공간과 유지비가 지원되고 동절기 유류비 정도만 작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동일한 지역내에서도 스튜디오에 대한 차별화

된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논산창작실의 경우 1999년도에 문예진흥기금 5,000만원을 수혜받아 창작활동보조금 및 시설보수비로 지원되었고, 전기료 및 보험료를 논산시청에서 연간 330만원씩 조달하고 있지만, 수혜 받은 문예진흥기금은 앞으로의 추가지원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330만원 기본유지비 또한 1년 유지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평창무이미술창작실은 평창군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관리 및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자체수익프로그램과 작품 판매, 아트숍 운영, 자판기와 입장료 수익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③ 입주작가 전액 부담

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지원은 정부에서 전액지원 한 후, 입주작가들이 운영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강릉제비리미술인촌은 7명의 작가가 거주하면서 연간 800만원의 임대비와 임대보증보험금 8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보수비용도 부족한 실정이며, 추가지원은 매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제비리미술인촌은 미술관을 건립하여 작품전시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담당할 수 있는 인력도 없을 뿐 아니라 전시경비가 마련되지 않아 유희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물임대료도 유상으로 지원되고 추가 지원이 아예 없는 곳이 있다.

<표 5>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운영경비 현황

스튜디오명	공간사용료		시설관리비 및 유지비	프로그램 지원비
	유상	무상		
창동미술스튜디오		○	수도세,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지원	2003년까지 전시지원비로 작가당 100만원 지급
고양미술스튜디오		○	수도세,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지원	일부지원
안성문화마을		○	시설비 4,500만원 지원	600만원 지급
강릉제비리미술인촌	○		입주작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없음
평창무이예술관		○	전기료 지원	없음
정선호촌미술관		○	입주작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없음

광주예술창작스튜디오 (양산동)	○		입주작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없음
광주예술창작스튜디오 (팔각정)		○	전기료, 수도세 지원	없음
대구미술광장		○	입주작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없음
단양방곡도예원		○	입주작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800만원 지원
청원마동창작마을		○	없음 (2000년 공동매입)	없음
제천예술창작스튜디오	○		입주작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없음
논산창작실		○	전기료 및 보험료 연 330만원 지원	없음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	입주작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없음
진안예술창작스튜디오		○	보험료, 전기료, 수도세 지원	없음
담양예술창작스튜디오	○		임대료 부분지원	없음
상주예술촌	○		입주작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없음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	시설비 2억 1천 700만원 지원(2001-2004)	없음
금수문화예술마을		○	관리비 연 560만원, 유지비 연 500만원 지원	문화체험교실 2,500만원 지원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	관리운영비 연 1200만원 지원	없음

4) 폐교활용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문제점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이상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인 미국의 아트-오미(Art-OMI)과 독일의 솔로스 솔리튜트 아카데미(Akademie Schloss Solitude)의 경우에는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는 독립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예술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고 여러 재단이 연계하여 운영된다. 국제 창작공동체 프로그램과 함께 우수 아시아 지역 작가를 선정하는 펠로우쉽 프로그램이 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미술창작스튜디오 가운데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 미술창작스튜디오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한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주변 자연환경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천혜의 주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기존 학교건물로서의 기능적 제약 때문에 미술인들의 거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도가 저조한 곳이 적지 않다. 폐교활용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원천적으로 숙박과 숙

식이 불가능한 시설이라서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기존의 관사나 숙직실을 일부 개조하여 관리자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는 안성문화마을, 평창무이예술관, 담양예술창작스튜디오, 방곡도예원,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전선호촌미술관, 제천예술창작스튜디오, 창원마동창작마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초의 설립 때와 달리 일반인들을 위한 관광지로서의 볼거리 부족과 방문지로서의 매력적인 동기 부족으로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채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교를 활용한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개관에 앞서 폐교를 스튜디오 운영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기본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연후에 입주작가를 모집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폐교 자체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지원만이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의 존립을 가능할 것이다.

3. 개선방안

1)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인식 재정립

국내의 경우 짧은 역사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설립되고는 있으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그에 따른 미션과 프로그램, 시스템 및 활동이 경직되어 있다는 데 있다.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은 문화예술인 중심의 예술창작활동에 중심을 둘 것인지,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제공에 중심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크게 나뉘어 질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기초로 운영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는가에 따라서도 나뉘어 질 수 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중심을 둘 때에도 작가 개인의 창작 공간 제공에 중심을 둘 것인지, 작가 및 큐레이터 간의 교류와 그에 따른 새로운 예술적 패러다임의 장을 만드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이것은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과 목적 뿐 만 아니라 전체 운용과 시스템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특성화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미술창작스튜디오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서 예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원이 조직되어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미국 AAC(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의 개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개념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는 국립창작스튜디오와 광주 창작스튜디오 뿐이다. 나머지 창작스튜디오는 모두 폐교를 작업실로 활용하여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 폐교 활용 창작스튜디오는 몇 곳을 제외하고는 작가에게 작업실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수적인 기능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 문화학습체험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문화시설의 종류로 보면 지역문화복지시설이나 문화보급전수시설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도시근교를 제외한 외진 산악지역, 해안도서지역 등의 폐교를 활용한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은 작업실 제공이라는 목적에 제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시설을 현재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미술창작스튜디오보다는 오히려 지역문화복지시설이나 문화보급전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문화관련 협회에 위탁운영 하여 사용목적에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미술창작스튜디오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확고한 운영의지를 갖고, 개관에 앞서 폐교를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연후에 입주작가를 모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입주작가와 계약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영주체의 의지와 재원 확보

국내의 주요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재원은 먼저 건립시 국고나 마사회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설치지원비에 한정되어 있는 이들 지원이외에 지속적인 시설 보수비용이나 관리비용의 지원이 어려우며, 수강료를 받고 운영되는 체험학습 이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개념과 목적이 각각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 분명해 질 때, 그것을 뒷받침할 유연하고 전문적인 조직운용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미술창작스튜디오 시설의 건립으로 그 임무를 다했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일관하거나,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성공은 입주 작가들의 몫이라는 인식으로는 결코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우리의 현실에서 정착하기는 어렵다.

현재 창작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그러나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체 인력과 예산으로 창작스튜디오를 조성,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민간지원은 거의 부재인 상태이다. 현재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BTL방식의 민간부분에서 시설을 건립하고 제공하고 정부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영재원의 경우, 뉴욕시 P.S.1의 경우처럼 운영경비조달을 위한 재원을 뉴욕 시 문화국, 퀸즈 지구 구청실, 뉴욕시 의회, P.S.1 이사회, 뉴욕주 평의회, 연방 NEA, 민간 재단, 기업, 협찬금, 기부금, 회원비, 방문객, 미술관 아트샵 수익금 등 다원화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이외로 다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해당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할 수 있는 관련 협회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의 지원이외에 행정자치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등 부처로부터 지역의 발전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때의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소재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가 다양한 혜택하에 작업공간을 사용하면서 지역의 이미지나 장소성을 홍보할 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해 내거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인을 양성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의 장소성이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을 현대화하거나 산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창작스튜디오를 통해서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략과 인식이 더욱 요구된다.

3)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프로그램은 전시와 오픈 스튜디오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인식 부재와 근본적으로는 재원의 부족 때문이다. 지역의 몇몇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의 미비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할 인력과 재원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미술창작스튜디오는 미술관과는 그 성격과 개념에 있어서 보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생산과 소통의 공간이므로 조직도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유연한 인력과 조직에 의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은 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활성화에 필수 조건이다. 특성화된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프로그램의 미비 외에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세부적 운영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는 아이디어나 창의성의 부족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의 부족을 탓해야 할 일이다.

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운영가능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전형화된 프로그램이 있다기 보다는 각 스튜디오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특성있게 운영되고 있다. 향후 각 미술창작스튜디오별 도입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 특성화 프로그램의 전개, 전문 예술양성 프로그램과 장르 간 연계 프로그램, 교육 기간과의 연계 프로그램,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도시 계획 구도내의 스튜디오 프로그램, 국제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등 각각의 미술창작 스튜디오의 전략과 목적에 맞는 위치 설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점은 각 스튜디오마다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장르이던, 기능이던, 하드웨어든, 휴먼웨어든, 장소성과 상징성을 활용하여 저마다 고유한 개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문화를 특화하고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자.

다음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핵심은 교류와 네트워킹인데, 정보 교환을 통해 자신의 작업에 맞는 다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도 있으며 작가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전통 문화, 현대 미술의 동향, 고유한 도시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지역사화와의 대화를 통한 커뮤니티 문화가 형성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작가와 지역주민 모두 스튜디오의 용도와 설립취지 그리고 운영되는 적절한 프로그램 등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한 역할로서 창작스튜디오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풍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창작스튜디오가 단순히 작업공간이라는 고립된 창작공간이 아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로 발돋움하고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문화활동들과의 지속적인 연계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각 지역마다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4) 시설 및 기타 운영상 개선사항

(1)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현재 창동과 고양 국립미술장작스튜디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하기에 공간 제약이 많으며, 전문작가 양성과 일반인들의 미술관련 강좌 등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에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티스트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있어서 건축 설계가 애초부터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시설 사용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으나 2층의 경우 작품을 운반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입주작가들의 출석평가 기준이 한달 내 1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가의 작업방식이나 활동영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특히 사진이나 영상작업의 작가들을 외부의 작업시간도 상당하여 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보자료실, 관화실, 사진인화실, 비디오 편집실이나 공작실(용접, 목공 등의 공동 작업실)등 시설개선이 요구된다.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간, 외부방문객들과의 만남, 평론가나 미술행정가들과의 만남, 작가와 일반인들의 만남,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의 증개축이 필요하다.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는 창동스튜디오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의 설계가 작업실 제공에 국한되어 있어서 여러 형태의 기능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기에 제약이 많은 편이다. 또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기에 작가 상호간 공간이 너무 폐쇄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커뮤니티 형성이나 교류를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역시 시설의 증개축이 필요하다.

(2) 지역 미술창작스튜디오

지역의 폐교활용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워낙 건물 자체가 오래된 곳이 많다보니 계속해서 시설보수가 요구된다. 특히 넓은 운동장과 건물주변의 잡초제거가 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입주작가들 사이에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볼 성 사나운 곳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본적으로 시설의 개보수와 주변 환경 정비를 입주작가가 감당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하다고 판단되지만, 폐교재산 활용 계약을 해당 교육청과 체결할 경우 입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할 경우 입주작가들은 이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작실이 외부방문자들에게 노출되어 있어 작품에 대한 훼손이 잦고 창작물 또한 지속적으로 보관하기 어려워 입주작가들의 작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또한 입주작가들이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시설 및 관리지원이 계속되도록 스튜디오 내 상주근무인력이 필요하다.

창작스튜디오 가운데 시설관리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으나 각종 프로그램 활동 예산이 전무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예산의 부족과 더불어 입주작가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인데 입주작가들은 첫째, 창작스튜디오의 본래적 기능인 작품 제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프로그램 운영시 재료

비 등을 작가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감이 크며, 셋째,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의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무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꺼려하며, 넷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아닌 작가의 개별 창작실 내에서 진행해야 하는 공간적인 제약 및 개인적 공간 개방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주 작가들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한 비공식적 체험학습 프로그램만 간간히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료 책정이 가능하면 입주작가들은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과 동시에 재정적인 도움도 가능할 것이다.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예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창작스튜디오가 과반수가 넘는 등 커뮤니티 형성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곳이 많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스튜디오관련 홍보물 등을 배포하여 더 많은 지역민들이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국공립창작스튜디오를 아우르는 큰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지원으로 기존에 구입한 시설 가운데 도자가마의 겨우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수리비 부담을 작가가 하기 어려운 상태로 구입 기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시급한 시행 조치가 필요하다. 많은 창작스튜디오는 냉난방 시설이 미비하여 여름이나 겨울의 창작활동 시 어려움이 있다. 폐교라는 입지적 한계로 인해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활동시(창작물품 구입 및 기본 생활비품 구입 등) 기름값 유지 및 시간 운용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편이다.

지역문화 특화 및 문화산업과 연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역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가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커뮤니티의 형성을 통하여 지역 문화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형식의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으로 지역의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현대문화산업으로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과 작업장에서의 작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작가들이 자신의 영역에 적합하게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한다.

5) 국공립창작스튜디오 확충

(1) 영상과 미디어 중심의 부산국립창작스튜디오

부산의 경우 영상과 영화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고, 자생적인 영상작가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미디어를 이용한 작가들이 화단을 주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상과 미디어 중심의 창작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상과 미디어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이는 결국 부산 뿐 아니라 서울이나 기타지역의 작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도 있

다. 특히 광주나 부산 비엔날레와 연계해 유수의 영상작가들이 국내에서 작품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문화교류센터로서의 광주국립창작스튜디오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미술행사로 이미 아시아문화의 새로운 중심과 허브도시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광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의 높은 완속도와 추가적인 하드웨어 구축노력, 소프트웨어 개발이 향후 아시아 문화의 전당과 같은 대형 문화시설의 건립과 함께 요구될 전망이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광주지역의 인적교류를 수용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장단기 체류가 가능한 시설의 건립이 요구된다. 아울러 광주 전남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개발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전세계에 광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각예술을 비롯한 첨단 미디어예술 등의 장르를 위한 “동아시아의 미술문화교류 활동의 핵심”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한다.

(3) 국립창작스튜디오 확충

광역단위 국립창작스튜디오의 조성은 기존의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운영이 초기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도심 내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조성하도록 한다.

“새예술정책”에서는 2008년까지 2,000실의 창작스튜디오 조성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전국 미술인 수를 약 2만명으로 추정하여 약 10%선의 확보를 산정하였다. 국립창작스튜디오는 국내외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국립창작스튜디오는 입주대상 작가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미술인을 비롯해 국내 작가들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립창작스튜디오는 공간 제공 뿐 아니라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특화된 창작스튜디오의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한다.

7) 미술창작스튜디오 지원 근거조항 마련

(1) 필요성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공적 의미의 창작시설로서 새로운 차원의 문화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할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우선 문화예술진흥의 기초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 내에 법적 근거조항이 없으나, 새로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가칭)기초예술진흥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도록 한다.

(2) 현재의 관련 조항 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5.27>
3. "문화시설"이라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장 9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장(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2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 ① 법 제9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함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을 말한다.

(3) 법적 근거를 위한 보완검토 사항

관련조항으로는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혹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항목에 창작스튜디오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 때의 창작스튜디오는 미술을 포함하여 관련법에서 규정하게 될 “예술” 정의에 해당하는 범주의 관련 창작스튜디오를 포함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문화시설의 종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문화시설로 범주화 되어 있으므로(법시행령 별표1 참조), 아래 사항에 대한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 법 제1조 문화시설 정의에 ‘창작시설’을 포함시키며, 대형건축물은 ‘건축물’로 조정한다.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반드시 대형 건축물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소형 건물의 경우도 스튜디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법 제9조에 다음 항목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가들의 창작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시설 조성을 권장하여야 한다.

○ 시행령 23조에 아래 사항을 보완토록 한다.

② 단, 창작시설의 경우는 공공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축하거나 신축하여 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코자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창작실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시행령 2조 별표 1. ‘문화시설의 종류’의 내용 보완

창작시설

- 공공창작실 :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교, 역사, 병원 등 공공시설을 개축하거나 신축 조성된 시설로서 조성 및 운영주체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공공적 성격의 창작실
- 사설창작실 :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서 조성 및 운영주체가 개인 및 사설단체인 공공적 성격의 창작실

(4) 기타검토사항

창작시설 조성에 따른 세제혜택 또는 행정편의 제공, 창작시설 운영 및 입주 작가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7) 미술창작스튜디오 협력망 사업

(1) 필요성

국공립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튜디오 조성에 대한 장기계획 및 스튜디오별 특성화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수요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적 차원에서 운영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창작스튜디오의 의미는 공간의 조성보다도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 전문요원의 확충과 통합적 관리운영이 병행 되어야 한다. 창작스튜디오가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술창작스튜디오 간 협조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긴밀한 협조체제는 중복된 업무와 이중적인 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문화시설이나 문화공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계형 조직 구도를 탈피하여 부서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시 되는 네트워크형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의 변화된 경영 환경에서는 개인 간, 기관 내에서의 네트워크 뿐 아니라 유사 기관 간 혹은 타 분야 기관 간의 유연한 네트워킹 능력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수월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2) 기능 및 역할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비롯해 미술분야의 의제 발굴과 관련 지식·정보의 유통과 협력 체계 구축의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연계프로그램, 학술행사,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을 '미술창작스튜디오 협력망 구축사업'(이하 협력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협력망은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와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례토론회, 워크숍, 전문가 풀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문가풀을 통하여 각계의 시각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이슈 및 아젠다 등을 논의한다. 협력망 사업으로는 다음을 제안한다.

- 국공립 및 사립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공립 및 사립 프로그램 간 작가교류
- 프로그램 간 특화 및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및 워크숍 개최
- 국제교류 프로그램 정보수집 및 교류 프로그램 창구역할(해외 인사교류 및 전시교류)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작가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 실시
- 공동 홍보
- 인적자원네트워크
- 학예사 및 실무자 네트워크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 창동, 고양 스튜디오 운영에 관하여

조주현(창동스튜디오 프로그래 매니저)

I. 일반현황

문화관광부에서는 기초예술분야 창작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창동과 경기도 고양시에 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건립하였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동 및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는 각각 2002년 6월, 2004년 4월 개관하여 젊고 유망한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작업공간과 편리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작업실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작가들의 창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인 스튜디오로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미술작가 및 미술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창작의 계기를 모색하고 국내외 스튜디오 간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며 일반 대중과 현대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미술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1. 연 혁

- '01. 11. 28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건립 기공식
- '02. 6. 1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제1기 작가 입주
- '02. 6. 20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개관식
- '03. 6. 2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건립 기공식
- '03. 8. 15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제2기 작가 입주
- '04. 4. 20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제1기 작가 입주
- '04. 4. 29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개관식
- '04. 8. 15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제3기 작가 입주
- '05. 8. 1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제2기 작가 입주
- '05. 9. 1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제4기 작가 입주

2. 임무

- 입주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입주작가 창작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
- 미술창작스튜디오 국제 교류 및 자료수집 등

3. 인원 및 업무분장

구 분	직 책	업 무 내 용
창동미술스튜디오 (3명)	프로그램매니저	운영프로그램 기획·실행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업무 전반
	애듀케이터	지역연계프로그램, 자료수집 등
고양미술스튜디오 (3명)	프로그램매니저	운영프로그램 기획·실행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업무 전반
	애듀케이터	지역연계프로그램, 자료수집 등

4. 시설현황

구 분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소재지	서울시 도봉구 창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규모	대지 452평, 건물연면적 453평 (1층 221평, 2층 214평, 지하 18평)	대지 1240평, 건물연면적 726평 (1층 370평, 2층 308평, 지하 48평)
주요시설	스튜디오 14실(14~22평), 전시실 1실(40평), 옥외작업장(58평)	스튜디오 23실(20평 내외), 전시실 1실(40평), 사무실 등
기타시설	사무실, 간이식당, 샤워장, 주차장 등	사무실, 로비, 샤워장, 주차장 등
건립예산	30억원(부지매입비 23억원 포함)	32억원(부지매입비 10억원 포함)
개관일	2002. 6. 20.	2004. 4. 29.

II. 입주 작가 현황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와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개관 이래 미술작가들의 창작 여건 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해 시각예술 전 분야의 역량 있는 국내외 작가를 선발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창작활동이 활발하고, 창작스튜디오 입주경험이 없는 만 25세 이상 49세 이하

의 국내외 미술 작가로 지원 자격을 두고 있으며 매 기수별 장기, 단기 체류를 통해 작가 상호간 발전적인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2002년 설립 당시 창동·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는 단순입주시설로서 국내작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는 참여정부의 '새예술정책'을 토대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스튜디오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창동 스튜디오와 고양 스튜디오에는 국내작가와 해외작가를 아울러 각각 창동 4기 작가 25명, 고양 2기 작가 34명이 선발되었으며, 이 중 외국작가의 입주율이 크게 증가해 2005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독일, 유고슬라비아, 네덜란드, 미국, 아이슬란드 등 총 6개국 9명을 단기 입주작가로 선발, 2006년 8월까지 1년간 3개월 단위로 입주 지원한다.

한 편, 아시아 현대미술의 공동 성장을 목표로 '아시아 작가 초청프로그램 (Asian Artists' Fellowship Project)'을 기획, 창동과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에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현대미술작가 각 1명을 각국의 국립기관 및 권위 있는 현대미술 단체장의 추천으로 조보평(趙寶平/ 중국, 회화), 앙키 푸르반도노(Angki Purbando/인도네시아, 사진) 등 5명의 아시아 작가를 선발, 작업실 및 월 생활비, 작가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의 문화중심국가로 문화한류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으로, 입주기간 스튜디오에서는 개인전 기획, 평론가 초청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미술계에 이들의 작업을 소개할 뿐 아니라, 51명의 국내 신진작가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작업역량을 증진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

Ⅲ. 프로그램 운영

1. 국제교류프로그램

가. 국제교환입주

국립현대미술관은 창동과 고양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입주 작가들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과 새로운 작업동기를 부여하고자 2005년부터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럽 및 아시아 등지의 우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스튜디오 교환입주를 지원해 오고 있다.

○ 개 요

- 대상기관 :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협회 (Res Artis, Alliance of Artists' Community 등)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중 우수기관 선정
- 교환기간 : 3개월
- 대상작가 : 창동/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장기입주작가
- 대상작가 선정절차 : 공고 → 모집 → 심사 및 선정 (국립현대미술관 자체 선정 심사위원회)

○ 지원 내용

- 교환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호 작업실 제공 및 체재비 등 지원
- 교환 국내작가의 귀국 보고 전시회 개최시 전시실 제공 및 전시비용 일부 지원
- 교환 외국작가가 전시회 개최를 원할 경우 전시실 제공과 전시비용 일부를 지원 하고 스튜디오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 제공

○ 2005-2006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 추진현황

구 분	상대기관	교환작가		교환기간
		국내작가	외국작가	
'05년도 상반기	CEAAC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권순왕 (뉴미디어,영상설치/남)	Cécile Yerro-Strauman (회화/여)	'05. 4.18 ~ 7.17 (3개월)
'05년도 하반기	프랑크푸르트시 스튜디오(독일)	이호진 (서양화/남)	Bea Emsbach (회화/여)	'05.10월초 ~ '06.1월초 (3개월)
	Stichting Atelierbeheer Slak 스튜디오(네덜란드)	나진숙 (조각,영상/여)	Steven Vinkenoog (설치/남)	상동
	Xiamen Vis-a-Vis Art Lab 스튜디오(중국)	권기범 (동양화/남)	Deng Yifu (조각/남)	상동
'06년도 상반기	뒤셀도르프시 스튜디오(독일)	김지현 (영상,설치/남)	Anna Heidenhain (설치/여)	'06. 3.1 ~ 5.31 (3개월)
	HIAP (핀란드 헬싱키)	이장원 (미디어,설치/남)	Timo Kellaranta (사진/남)	상동
	Sculpture Square (싱가포르)	김범수 (조각,설치/남)	Jeremy Hiah (설치,퍼포먼스/남)	'06. 4.3~5.13 (5주)

나. 아시아 작가 초청 프로그램

2005년부터 시행된 아시아 작가 초청 프로그램 (Asian Artists Fellowship Program)은 아시아의 한류문화를 지속·성장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의 유망 미술작가 총 5명을 초청해 지원하며, 한국문화체험 및 미술계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모션하고 있다.

○ 개요

- 목적
 - 아시아의 유망 미술작가를 초청·지원하여 아시아 국가와 미술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고 국제적 스튜디오로서 기반을 마련
- 대상국가(인원) : 아시아 5개국(각국별 1명)
- 입주기간 : 1년
- 입주기관 : 창동/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 추진방법 : 초청대상국의 국립미술관 또는 예술기관의 장으로부터 시각예술 분야의 유망작가를 추천받아 입주시킴

○ 지원내용

- 작업실 제공 및 체재비 150만원/월 지원
- 입주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시 기회 제공
- 스튜디오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 제공 등

○ 2005-2006 아시아 초청작가 현황

구분	국가명	작가추천기관	초청작가(전공/성별)	입주기간
창동 스튜디오	중국	중국미술가협회	조보평(趙寶平) (회화/남)	'05.9.1~'06.8.31 (1년)
	인도네시아	CEMETI 미술재단	Angki Purbandono (사진/남)	상동
고양 스튜디오	태국	Thailand Ministry of Culture(문화부)	Chananun Chotrungrroj (사진/여)	'05.8.1~'06.7.31 (1년)
	필리핀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문화예술국가위원회)	Leslie E. De Chavez (회화,미디어/남)	상동
	말레이시아	National Art Gallery (국립미술관)	Ahmad Fuad B. Osman (회화,퍼포먼스/남)	상동

2. 오픈스튜디오

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연례행사로 입주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입주 작가들의 입주기간 동안의 작업성과를 미술계 및 일반인 등에 공개하여 입주 작가들의 작업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며, 출판물 제작 및 비평가등이 참여하는 작가 연구 세미나를 통하여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오픈스튜디오는 작가 작업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개방하며 1년간의 성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로, 2003년 창동1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2004년 창동2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창동명월', 2005년 창동3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倉洞庫_CHANGDONGO', 고양1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hub'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미술관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평론가 등 미술계 관련 종사자 및 기업 마케팅 관련 종사자, 대사관 또는 문화원 직원, 동료작가, 학생,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입주작가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다양한 이벤트 및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입주작가 활동지원 프로그램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입주작가들의 입주기간 국내외 미술계에 작가를 프로모션하며 각종 전시 및 아트페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적 교류에 힘쓰고 있다. 국내외 큐레이터 및 갤러리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관계자, 미술기자 등의 수시 방문에 의해 작가들의 작업을 프레젠테이션하고, 매 기수별로 제작되는 홍보물 및 각종 전시 자료, 오픈스튜디오 도록 등을 전 세계 주요 미술관, 갤러리,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300여 기관에 발송하고 있다. 한편, 스튜디오 내 전시실을 이용하여 개인전 및 그룹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세미나, 워크숍, 출판물 제작, 홍보 등을 진행한다. 그 외, 국내외 전시 및 레지던시 기금 지원 프로그램, 입주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입주작가들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4. 지역연계 프로그램

창동과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지역사회의 공공 문화시설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연계 활동들은 입주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의 장으로서 역할하며, 대내외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작가들이 직접 인근 초 중 고등학교 미술

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상계동에 위치한 보육시설인 '성모자애보육원'과 연계하여, 입주작가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 소외아동들과 미술활동을 하는 등 지역문화향수 기회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편, 오는 6월에는 지역문화공동체축제 'Enjoy창동'을 개최할 예정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체험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나고 있으며, 향후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도 다할 예정이다.

IV. 국내의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

1. 전 세계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조사

국내 미술인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창작스튜디오 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작가지원 단체에 관한 정보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한 벤치마킹이 필수적이다.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협회 (Res Artis)에 가입된 단체 또는 우수한 사례로 파악되는 해외 스튜디오 200여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시설현황, 운영 프로그램, 지원절차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장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입주작가 및 일반 미술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에 관심 있는 미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자료 수집, 조사는 주로 인터넷 정보 및 홍보물을 통한 기초정보조사를 바탕으로 담당자와의 접촉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 11월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의 유럽작가지원 프로그램 방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 지방 창작스튜디오 현황조사 및 네트워킹 구축

2000년 이후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되어 관심이 고조되면서 창동, 고양,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비롯한 국공립 스튜디오와 짬지, 경안창작스튜디오, 가나 아뜰리에를 비롯한 사립미술창작스튜디오의 활동이 두드러진 반면, 각 지역 지자체 및 작가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방 폐교활용 스튜디오의 여건 및 운영 실태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창작스튜디오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모범적인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국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킹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 편, 전국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시도로, 2004년 10월부터 11월 중 5주에 걸쳐, 「전국 미술창작 스튜디오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총 4개 권역에서 5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참여 작가는 총 60여명, 초청 패널은 총 15명에 이르러, 작가들에게 작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등의 분석 비평을 통해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 획득기회를 부여하고 수도권과 지방 스튜디오 입주작가간 장르별 상호 교류 및 전국 미술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형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쌈지스페이스 스튜디오프로그램 운영

신현진(쌈지스페이스 제1큐레이터)

설립배경

쌈지스페이스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은 (주)쌈지가 창고 공간을 작가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 홍대 부근에 쌈지스페이스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미술단체를 운영한 기간을 합하여 9년이 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순수미술 작업을 모티브로 하는 디자인과 함께 순수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문화를 아는 기업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아트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쌈지스페이스 스튜디오 프로그램 개요와 변화

목표

서울에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레지던스프로그램으로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작업활동을 보이는 의식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 스튜디오 공간 및 국내외 미술관계자와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와 영향을 교환하고 참여작가들의 작가로서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위한 현실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작가 선정

매해 10개의 스튜디오에 국내 작가 6-7인과 국외작가 16개 팀이 장르구분 없이 선정되며 1년프로그램의 경우 1차 서류심사 및 2차 작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단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서류심사만으로 선정됩니다. 심사위원은 쌈지스페이스 학예팀 스텝 및 임원, 쌈지스튜디오 전기 작가들 중 일부로 구성됩니다. 매년 1월 말경에 접수가 끝납니다.

프로그램 지원 항목

1) 지원항목 : 12~15평의 작업 및 거주가 가능한 스튜디오 공간, 건물관리비(인터넷, 전기세, 수도세), 오픈스튜디오 전시, 오픈스튜디오 도록 제작 및 홍보, 부엌, 샤워실, 세탁기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2) 작가부담항목 : 작품제작비, 여행경비, 식비 등 개인적 지출

프로그램 내용1) 오픈스튜디오: 매년 3월 말에 준비된 전체 오픈스튜디오 전시 외에

도, 수시로 개별 오픈스튜디오 전시를 마련합니다. 개별 오픈스튜디오는 외부와 연계 또는 외부로 확장하여 진행됩니다.

2) 비평가, 큐레이터 및 딜러 초청 작가 프레젠테이션: 당해 거주작가들은 각각 15분 발표, 15분 질의문답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국내외의 미술관계자들에게 작품을 알리며 작업을 논의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프로모션과 함께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갖게됩니다.

3) 전시기획자 및 이론가와의 교류기회 제공: 작가와의 미팅을 주선하여 스튜디오 작가와 전시기획자와의 네트워킹을 확대합니다. 특히 외국 미술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작가들의 해외교류와 진출을 도모하고 한국작가와 미술을 세계 무대에 전략적으로 소개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1 구로다 라이지/ 2005년 후쿠오카 트리엔날레 총감독, 작가선정위해 방문
- 1 크리스틴 스타크만/ 휴스턴 미술관 큐레이터, 2007년 한국전 개최예정인 06년 재 방문
- 1 오자키 테즈야/일본의일-영문 미술전문잡지인, ARTiT의 편집장, 한국현대 미술 조사차 방문
- 1 브뤼셀 비엔날레, 시드니 비엔날레, 아시아 퍼시픽 트리엔날레 관계자 방문 등

4)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는 시작하여 외국인 작가, 해외거주 한국작가, 프로젝트 팀을 위한 3개월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외국인과 프로젝트팀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작가 및 외국인 작가를 위한 3개월 단기입주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해외 레지던스 기관과의 교류가 시작되어, 현재 호주 아시아링크센터를 통한 호주작가 1인이 매년 단기프로그램에 초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네덜란드 유티레히트 예술아카스쿨 및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의 작가를 초대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해외의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한국 작가 및 큐레이터들의 해외진출의 길을 터 놓았습니다.

쌈지스페이스 스튜디오 프로그램 특징

1) 쌈지스페이스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가장 큰 변별점은 사립기관이라는 데에 있습니

다. 사립이기 때문에 작가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의 작가 군을 선정해야 한다거나 작가의 복지 측면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립 단체에 비해 공익의 의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씬스페이스는 공간의 제공 이외의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작가위주의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중의 하나를 씬스페이스 관련작가의 해외진출 도모로 보고 있습니다.

2) 네트워크와 교류기회 주선-사교의 확장

국제교류전,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을 바탕으로 한국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국제 큐레이터 레지던시를 시작하게 된 것도 과거에는 씬스페이스로 찾아오는 전시 기획자들을 통한 작가 소개가 위주였다면 기획자를 수용함으로써 좀더 적극적인 한국 작가들의 해외 전시기회가 확장되도록 추진하고자 함에서였습니다. 또한 레지던스프로그램의 큰 성격중의 하나가 여러 명의 작가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교류전이나 스튜디오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초대된 외국 작가들도 여기에 섞이게 되는데, 이들과 국내 작가들이 전혀 다른 문화에 부딪히며 작업 활동과 사교의 폭을 넓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 장소

씬공간이 시내에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폐교의 경우 거리가 멀어 작가들이 수입을 위해 도시로 오가면서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술계가 또한 세계화되는 현 시점에서 국제 미술계와의 연결점이 되기 위해서는 미술관계자 및 미수관계 단체와의 용이한 상호 접근성이 필요 합니다.

향후 계획: 국내외의 석학을 초청


석학들을 초청 이들의 비평을 통해 작가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더 효과적인 작가 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씬스페이스의 재정적 형편이 프로그램의 무한정 확장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교육프로그램은 잠시 유보된 상황입니다.

창문아트센터

박석윤(창문아트센터 운영)

경기도 화성시 수화동에 위치한 창문아트센터는 1938년 개교하여 2000년에 폐교한 창문초등학교를 임대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다. 창문아트센터는 폐교를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여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면서 상호교류를 통해 창작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곳은 지역민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가 들어선 화성시 수화동은 7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창문아트센터의 프로그램들 중에는 주민들이 주축이된 농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예술행사 프로그램이 있어 지역을 찾는 이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들어 도시인들에게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은 소득 증대를 꾀하여 침체됐던 마을에 활기가 감돌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2003년 센터와 마을주민이 결합된 창문 문화.농촌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예술과 신선한 유기농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작가와 지역이 모두 상생하는 아트센터로 발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수화동 236
설립 년도	2000. 12
특 징	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체험공방/지역주민문화센터
주요 시설	철근 콘크리트 건물전시실/스튜디오/숙소/조각공원/체험교실/자료실
설립 목적	다양한 예술활동의 중심적 역할 및 미술체험 대안공간
프로그램	가족단위시각예술체험프로그램 / 문화농촌체험 프로그램 / 학교연계프로그램 / 레지던시 프로그램 / 허수아비축제, 깃발축제 등
참여 작가	9명
전 경	

<표 11> 센터 일반 현황

1. 마을 현황

1) 지역여건 및 제반 상황

창문아트센터가 자리 잡은 화성시 수화동은 학교 인근 지역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폐교를 둘러싼 1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70여 가구, 약 180여 명이며, 폐교반경 1km 정도에는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지역주민들 대부분은 창문초등학교가 폐교된다고 했을 때 폐교 결정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촌 지역에서 학교란 단순히 학생 교육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가 숨 쉬는 곳으로서 지역문화의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로 경비 절감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폐교 결정이 내려졌고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부분 반대했던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애교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학교가 지닌 지역사회 중심문화시설로서의 상징적 기능의 소멸에 대한 허탈감과 더불어 임대나 매각에 의해 지역의 정서에 반하는 이질적인 문화와 집단의 이입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폐교가 불가피하더라도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중심시설로 학교건물이 재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자녀교육과 주민 계몽에 관련되는 기능을 계속 유지하여 지역사회에 여전히 기여하는 시설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정서와 바램들은 폐교된 건물을 활용해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폐교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학교가 맡았던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더욱 향상시켜서 지역문화센터의 공익적 기능이 보완되는 쪽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도시사람과 농촌사람의 만남의 장으로, 또는 도시와 농촌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농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 창문아트센터의 시설 현황

시설 명칭	내 용
창작아트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작업실 확보와 작가들과의 교류, 작품발표, 세미나, 교양강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 · 전문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을 조성. · 현재 11명의 작가가 활동 중이고, 매년 1번의 정기전과 2번의 예술제 등을 통해 그룹, 외부작가 초대전 등을 행함.
환경 조형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련 학술 세미나 · 예술제 · 환경조형물 조성 · 문화 강좌를 통해 대중에게 접근
자연 미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여건상 정규 교육에서 다하지 못하는 대안교육의 장으로서 전문가와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조형체험장을 갖추고 있다.
예 절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예절, 전통혼례, 다례, 현대예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갤 러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실내외 공간.

창문아트센터는 전체 교실 13칸 중에서 9칸은 작가가 활용하고 나머지 4칸은 체험 학습실과 예절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 2층 전체는 어떠한 방해요인 없이 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1년에 봄, 가을 2차례에 걸쳐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통해 개방하고 있다. 이밖에도 식당을 개조하여 만든 창문갤러리에서는 아트센터 정기전 및 지역작가들과의 교류전, 화성시 미협전, 외부작가 초대전,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 미술부 전시회, 아동미술 전시회 등 미술작품 전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트센터를 하나의 축으로 문화체험 마을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또한 공룡알 화석지, 남양성지, 제부도 등 화성시에 있는 문화자원과 연계된 각종 예술행사와 농촌문화체험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관광 루트를 개발하여 외지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등 차별화된 관광시장 형성으로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가 이렇게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지역과 연계하는 지역개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것은 지역이 잘 되어야 창문아트센터도 잘 된다는 동반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문아트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여건은 창문아트센터의 존립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적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창문아트센터의 존립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다.

창문아트센터가 위치한 화성시 곳곳에는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있다. 이중에는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관광 명소화 된 데도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다시피 한 곳도 적지 않다. 지역의 개발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존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화호가 개발되는 가운데 빚어진 자연환경 파괴는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창문아트센터는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적 여건들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창문아트센터의 문화예술적 활동력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개발된다면 지역의 예술 발전은 물론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2) 운영 프로그램 현황

① 예술관련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문화의 시대'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문화가 최고의 부가가치를 낳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재 세계는 보이지 않는 문화전쟁을 치르고 있고,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창문아트센터 또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예술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러한 예술 교육을 목적으로 창문아트센터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다. 2001년 하반기에는 남양초등학교 4·5·6학년의 정규 미술수업을 창문아트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한 학년씩 4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매체의 다양한 접촉과 자유로운 놀이 개념으로 교육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의식이 눈에 띄게 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잘 그려야만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

도록 학생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공교육에서 하지 못한 설치미술이나 행위미술 등 새로운 장르의 예술형식을 접하게 하고 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도 일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창문아트센터에서는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회화 실기와 미술 이론 등에 관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체험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상대로 미술학교를 연다든지, 환경설치미술제나 행위미술제, 허수아비 예술제 등의 각종 예술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학을 맞은 어린 학생만이 아닌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각 분기별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미술의 실천적 작업과 이론적 작업에 대한 강의와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진작과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창문아트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환경예술제와 허수아비예술제는 센터의 입주 작가와 협성대학교 조형학부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매년 6월(환경예술제)과 9월(허수아비 예술제)에 화성시 농정과 의제 21의 협조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허수아비예술제는 매년 벼농사 수확 기간 중에 지역 쌀 홍보와 판매 및 여타 농산물의 직거래를 위해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노랗게 벼가 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참새 떼를 쫓기 위해 만든 허수아비는 마을의 풍요로움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다양한 모습의 허수아비를 직접 만들어 눈에 설치하는 허수아비예술제는 해가 갈수록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단순히 허수아비만 만들어 전시하면서 시작된 이 축제는 이후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전통 혼례와 전통예절, 송편만들기, 제기만들기, 색한지에 편지쓰기와 같은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방아개비, 잠자리 잡기와 같은 자연체험 프로그램, 이밖에도 센터 견학 및 오픈 스튜디오 운영 등과 같은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면서 전통문화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다.

② 농촌 체험 프로그램

앞서 언급한 환경예술제, 허수아비예술제와 더불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친환경 유기농법인 오리농법과 벼싹재배, 과수재배 등을 실시하여 신선한 무공해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고 주말농장과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찾는 사람들과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증대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를 수 있는 데는 창문아트센터의 회원이 곧 농촌체험마을의 고정적인 회원으로 흡수되어 안정적인 회원 확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이는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지역 속에서 문화와 예술의 육성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창문아트센터와 연계된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달 과정

단계	사업발달상황	시기	내 용
1단계	사업준비1	2002.9~2003.3	① 문화체험마을 협의체 구성 ② 영역별 역할 기능 조절 ③ 영역간 네트워크 통합 ④ 기능 및 프로그램 개발 ⑤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⑥ 관공서의 법률적 규제에 대한 허가 및 승인
2단계	사업준비2	2003.4~2004.3	① 도로 옆 꽃길 조성(8km) ② 각 단위 사업장별 상징 조형물 설치(목장승, 허수아비, 솟대, 남근석, 돌탑, 원두막 등) ③ 체험마을 조감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④ 전통농사체험장 부지 및 전통농기구 등 전시자료 확보
3단계	서비스개시	2004.4~2005.3	① 고객관리 및 개인화 서비스 발굴 ②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를 통한 고객 인지도 제고 ③ 농촌 휴양 프로그램 개발 ④ 관광상품 개발 ⑤ 생태농사체험장 조성 ⑥ 유치원, 학원, 대기업 등을 상대로 자매결연 확대
4단계	시장확산	2005.4~2007	① 녹색 농촌 체험마을 신청 ② 정보화 마을 신청(2006년 행자부 지정) ③ 유기농법 확산 ④ 먹거리 및 민박 확대 ⑤ 생태 체험학습공간 구축 및 체험 확대

이와 같이 그동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그동안 창문아트센터에서 진행해

은 미술체험 프로그램이다. 창문아트센터는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학원이
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단체회원들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러한 자매결연은 도시와
농촌은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지역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인식에
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주말농장 및 벼농사 체험 등을 통해 마을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직접 거래함
으로써 회원들은 싱싱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얻을 수 있고, 농촌은 고정된 판로를 확
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마을에서는 보다 친환경적인 유
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밖에도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
한 꽃길 조성 등의 다양한 공공사업에 주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폐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숨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문화체험과 연계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표 4> 창문아트센터의 문화체험과 연계된 농촌체험 프로그램

월	행 사 내 용		
	문화체험(창문아트센터)	농촌체험(인근 농가)	견 학
1월	판화 찍기(오목판화, 블록판화, 직판화, 실크스크린) 연 만들기	고구마 구워먹기 / 썰매 타기 / 팽이 돌리기	제암리 기념관 견학(3·1운동 유적지)
2월		보리밭기	
3월	석고 부조 모형뜨기(여러가지 색을 이용한 부조)	썩 캐기, 냉이 캐기	
4월	비닐 페인팅/난타(주변의 각종 빈통을 이용한 우리가락 두들기기)	주말농장(감자심기), 꽃씨심기	남양 5일장견학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5월	환경 예술제 (깃발전, 오픈스튜디오, 전시회, 환경조형물 만들기)	창포에 머리감기 / 모심기, 오리방사,	경비행장 견학
6월		배, 포도 봉지 씌우기	
7월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 여름미술학교 개설	원두막체험 (여름과일 먹기)	감자수확
8월			(포도수확) 배추심기
9월	허수아비 예술제 (허수아비 만들기, 전통혼례 및 예절교육, 전통놀이, 송편 빚기)	배추벌레 잡기 / 버섯관찰	젓소 농장, 사슴농장 견학
10월		벼 베기, 배 수확, 배추 수확 / 김치담기	
11월	탈 짚어 색칠하기	비닐하우스 탐방	
12월	장승 만들기 / 겨울미술학교 개설	눈 조각 만들기	

농촌마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내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예술프로그램들

과 함께 진행됨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 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과 주말농장 프로그램은 지역의 소득을 증가시켜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개별 작가 스튜디오 매핑- 일산오픈스튜디오의 현황과 실제

1. 일산 오픈스튜디오의 현황

일산 오픈 스튜디오의 출발

2001년 10월에 (2001 구산 오픈 스튜디오)展 이라는 이름으로 스튜디오 작가 17명과 기획전 작가14명이 작가 개인의 스튜디오 전시회와 함께(향수)展 이라는 기획전을 동시에 열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3년 2회 전시부터 성석동의 작가와 함께 연대하여 지금까지 전시를 하고 있다

일산 오픈 스튜디오의 특징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새로이 정착한 작가들이 그들의 삶과 작업 공간을 사회문화적으로 재구성 하는 프로젝트를 작가 스스로 기획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미술 작품의 제작 과정과 제작 공간을 오픈하면서 자생적인 미술 문화를 창출하려는 작가들만의 집단적인 노력에서 출발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산 오픈 스튜디오의 진행과정

몇 번의 전시를 거치는 동안 일산 오픈 스튜디오는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진통을 겪으며 자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작업실 문을 열고 체험행사와 작가 세미나를 열었다. 5,60명이라는 작가들이 참여하는 상당히 많은 양적인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국내 여러 지역에서 올라와 정착한 다양한 작가 군과, 지금 출발하는 작가와 오랜 작가 경력을 가진 중견 작가가 함께 어울려 다양한 전시를 접할 수 있었다. 전문 예술가들의 인적자원의 다양함과 풍부함이 일산 오픈 스튜디오의 미래를 밝게 하였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예비작가)의 방문과 전문 작가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또한 초기에는 인근 초등학교,유치원에서 체험행사에참여했으며 일산 오픈 스튜디오의 인지도를 높여 갔다. 하지만 몇 번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는 떨어지고 작가들도 소극적인 행사 위주의 진행으로 전개되었고 전시의 질도 발전하지 못했다. 또한 성석동과 구산동 지역이 분리된 상태이다.

2. 일산 오픈스튜디오의 문제점

일산 오픈 스튜디오는 자생적인 미술 문화를 창출하려는 작가들의 집단적인 노력에서 출발하였지만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지 못했으며 다수의 작가의식이 모여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화의 기회 부족으로 오는 충돌과 마찰, 그리고 진행자(집행부)들의 진행 미숙, 구산동과 성석동의 먼거리에서 오는 진행의 어려움, 외부의 새롭고 다양한 기획자와 협력자의 관심을 끌어오지 못한 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많은 큰 전시(고양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고양조각가협회전),작가들의 일반인들에 대한 관계 미숙, 일반인들이 작가들에 대한 접근 방법의 미숙, 장르별 다양한 작가 부족, 새로운 작가의 유입 부족, 많은 작가들이 존재함에도 공유할 수 있는 전시장도 없는 상황(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작가들도 많음), 작가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의식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일산오픈스튜디오의 새로운 움직임

일산 오픈 스튜디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화의 부족이다. 너무나 많은 작가들의 수도 문제겠지만 토론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시와 행사들이 특정인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에 참여 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작가들의 의식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산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음은 위의 문제점을 인식한 작가들의 여론이 생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 작업실 탐방 프로젝트

작가 탐방 프로젝트는 일산 파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 작가들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자의 스튜디오에서 열린 창작체험행사를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 작가의 삶을 이해하고 문화 예술적 소양과 미적 감각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전환을 유도한다.

2. 그룹 "공룡"의 심학산 프로젝트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열려있는 전시회와 창작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에 뜻이 맞는 작가들이 모여 프로젝트 창작그룹 "공룡"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심학산 전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매주 모여 주제와 안건을 토의하고 있다. 심학산지킴이, 심학산살리기 시민연대와 연계활동을 통해 작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다가가고, 그것을 작품화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작가 커뮤니티를 획득하고자 기획되었다

3. 창작촌 Art Educator 양성 교육프로그램

창작촌 Art Educator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일산 오픈 스튜디오와 그와 관련된 전시회에 필요한 Art Educator 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푸르피 창작공간이주관하여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의 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질 높은 예술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창작촌과 작가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일산 오픈 스튜디오의 전망

일산 오픈 스튜디오는 자생적인 미술 문화를 창출하려는 작가들만의 집단적인 노력에서 출발하였던 것처럼 발생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작가 탐방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 스튜디오에서 작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그 작가의 독특한 창작 방식을 창작 체험케 함으로써,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Art Educator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일산 오픈 스튜디오와 지역의 여러 전시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예술의 수요자와 후원자층을 확보하고 작가의 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인 들에게 질 높은 예술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촌과 작가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창작촌의 지역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기업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여 창작활동과 향수 활동을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예술문화를 주도해갈 것이다. 지금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지니고 있지만 작가들만의 집단적인 노력에서 출발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면서 치유해나가고 있다.

부산 · 경남의 공동 창작촌 사례

-가인예술촌, 아트인오리, 오픈스페이스 배-

서상호,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부산을 인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역동성, 해양성, 관광도시, 비엔날레 등의 외부적 시각이다. 해양성, 즉 바다가 가지는 많은 이야기들은 부산의 많은 부분의 인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18년의 세월과 함께 해운 지역미술의 색을 잘 보여주는 바다 미술제도 그 예라 하겠다. 부산시립미술관 역시 해운대라는 관광특구에 위치하고 있다.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산의 이미지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상황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다. 바로 문화적 경쟁력, 좁게는 미술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조성이 너무 열악하다는데 초점을 두어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미술관이나 비엔날레가 차지하는 문화적 역할은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작가들의 생산과 사유의 현장인 작업장에서는 이렇다 할 소통의 방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작업장이라는 공간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많은 작가들이 현장으로, 대중에게로 나서려는 생각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미술 관에서도 공공미술의 다양한 시도와 정책들이 보이고 있는 최근, 작가들의 작업공간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이 분명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의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조성된 공적 창작스튜디오의 사례를 보면 단기 체류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기존의 공공 기관 주도의 프로그램들은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수요가 현저히 많은 여러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기 보다는, 결과물 중심의 편의적 요인들에 진행되고 있다. 작가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자유로운 창작과 사유’의 공간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작 작업실에는 작업에만 열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들이 다양한 각도로 지원반영되어야 한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집단창작촌의 사례와 과정들을 전부 나열하기란 필자로서는 기준의 지표가 없고 단기간 공동창작촌을 운용한 사례들은 다음 기회에 자세한 지형이 그려지기를 희망하며, 공동행사를 주관한 경험과 다수의 멤버가 수년 이상 운용한 대표적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가인 예술촌 “... 문을 닫다”

경상남도 밀양소재 가인초등학교 이름을 딴 「가인예술촌」은 1996년부터 예향의 고장을 주창하는 밀양시장의 의지를 비롯한 지역예술인,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7년 8월 1일 집단창작촌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고양이나 창동 스튜디오를 제외한 몇몇 집단창작촌에 비하면 복 받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밀양시가 교육청에 임대료를 해이를 미술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양 시에서는 국내 최초라는 이름 하에 유희공간을 재활용한 수준 높은 예술을 선보이는 곳이라고 자부했다. 대지 2,405평, 작업실, 전시실을 포함한 건평 500평의 공간과 운동장은 잔디로 조성되어 사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며, 밀양 얼음골을 가는 길목이라 관광객들에게 잠시나마 쉼터의 역할도 하는 곳이 되었다. 개관 당시는 밀양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미술인 15명의 작가가 입촌 하여 작업을 전개했으나,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작가, 특히 청년작



가들이 모여 대작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작가를 ‘심의’를 통해 입촌 작가를 선정하여 8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밀양시에서는 가인예술촌을 통해 수준 높은 지역문화 만들기,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밀양시의 문화 홍보차원, 밀양시의 예술인 증가, 미술체험공간 활용 등의 필요성으로서 가인예술촌의 생성 목적을 제안했다. 그러나 8년 뒤인 2005년 「open studio exhibition “... 문

을 닫다”」라는 주제전이 마지막 전시가 되어 주위 작가들과 미술인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

가인예술촌이 문을 닫게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밀양시와 예술촌작가들의 유기적인 관계 부족으로 보인다. 우선 가인예술촌의 걸어온 길을 보면, 개관하던 해인 1997년 ‘하계가족 도자기캠프’를 비롯해 ‘관화캠프’, ‘부산영재교육’, ‘부산-경남 초등미술교사 연수회’등 문화의 공간, 교육의 장으로의 활용과 ‘Slow Slow Quick Quick’ 등 전시기획, “현대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등의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최대한 지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런 많은 기획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예술촌 자체의 부단한 노력으로 기획, 구상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타 단체의 장소제공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밀양시의 이해부족 또는 연계된 기획과 홍보 및 운영의 전문인력 부족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많은 행사들이 시 관계자는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으니 입주 작가들의 무관심과 폐교라는 장소만 제공한 시의 등한시 등 서로의 안일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시는 일방적인 관리 소홀만 탓하고 행사

를 요구만 하였지 지원은 부족하였고, 개인당 월 5만원의 회비를 모아 직접 관리하기에는 무리한 실정이었다. 가인예술촌은 밀양시에서 임대하여 작가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니 폐교 감정가격의 5%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 여타 창작 촌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으나 자체의 예산과 관리인력없이 행사실적을 요구하는 현실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밀양시에서는 예술촌 자체의 사업으로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 시의 관광차원의 홍보를 기대하지만, 가인예술촌 작가들은 그들의 왕성한 대·내외적 창작활동이 가인예술촌을, 또는 밀양시를 홍보한다고 보았다. 아무튼 예산의 지원은 없으니 작가에게는 힘겨운 부담으로 올 수 밖에 없었고 결국은 서로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으며, 유대관계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홍보, 예술촌 운영 관리 등의 제반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작업에만 전념하기를 원하는 작가들의 순수창작 공간으로서의 지원 정책의 요구로 이어진다.

사유야 어떻든 다시 되돌릴 수 없을까? 이렇기엔 밀양시와 작가들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것 같다. 시의 이야기는 일단 퇴촌, 그리고 리모델링 후 다시 추천하여 작가를 구성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방침이다. 관계자에게 언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끝나며, 또 작가 추천은 언제, 누가하는지를 물어 봤지만 “모른다”는 말로 일축했다. 그의 말은 “일단 예술촌에서 자리를 비워라. 그리고 추천되면 다시 들어와라.” 언제, 그리고 다시 들어갈지도 모르는 곳을 위하여 노천에 그림을 쌓아두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작가들은 더 나은 작가가 이 자리를 메우기를 바라며 마지막 전시를 꾸몄다. 이제 가인예술촌의 잔디밭에는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직까지 가인예술촌의 새로운 식구에 관해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단장해 보겠다는 작가도 리모델링 할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시의 다음 대안을 한마디로 한다면 “없다”이다. 그러나 “가인이라는 집단창작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 나은 문화 공간 제2의 가인예술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 아트인오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행정구역상 부산임에는 틀림없다. 허나 다녀간 사람은 부산의 끝자락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울산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오리’는 지역명칭이다. 다섯 개의 마을이 모여 오리인 것이다. 1998년 대룡마을에 지역출신 작가의 소개로 2~3명이 모여 동지를 터기 시작하였다. 집단창작촌의 대표공간이 되어버린 폐교, 우사나 퇴비사... 그 중 <아트인오리>는 후자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소와 작가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소사육의 과정도 자연스레 알게 되기도 하였다. 시골에 젊은이가 없는 현실로 인해, 가호마다 소가 쓰러지



면 밤낮없이 이곳 작가촌으로 도움을 청하곤 했다.(소는 쓰러지면 혼자 일어서지 못함.) 입체작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장비 또한 지역마을의 다양한 역할들을 하였다. 입주 작가들의 손과 땀으로 공간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용 범위도 넓어졌다. 사육으로 수입을 유지하던 주인은 창고 임대료로 전환되고 소들은 사라졌고 입주 작가들은 공간의 장기 확보가 가능해졌다

고 여겼다.

2000년부터 초창기 동인을 포함 8명의 멤버가 안착하여, 지역미술계의 신선한 피의 역할로 크고 작은 전시회의 주요 참여 작가로서 활동들을 하게 된다. 그 중 몇 명은 유학을 떠나기도 하고 중앙(서울)무대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입주 작가들은 대부분 의식주를 자체 공간 내에서 해결하며 (짜장면 배달과 신문배달이 안 되는 지역임) 창작 활동과 공동체 생활을 꾸려 나갔다. 2001년 작가 스스로 자생의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이중 열악한 지역의 전시 공간 부재를 몸소 느끼고 있던 터라 창작촌 내 17평의 비영리 전시공간을 가동하게 된다. 그리고 작가 중심의 전시를 목표로 하는 각종 주제전과 신진 작가 개인전들이 열리게 되었다.(나름의 지표로 행사 전년도에 작가선정들을 마친다.) 그리고 전시와 함께 향시 워크샵 또는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후 2003년, 전시공간의 열악함을 보강하고자 다양한 기금확보를 위한 프로그램(500만원 확보)과 입주 작가들의 땀으로 약 70여평의 공간을 보수하여 '오리 두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 전을 시작으로 새로운 전시공간을 오픈하게 된다. 재정적 어려움은 어느 작가에게나 있는 일이겠지만 입주작가들은 과정의 순수한 정신과 열정만을 중요시 하였기에 행정적, 정치적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기금확보가 그다지 쉽지 않았다. 지자체의 '소액다건' 지원정책으로 인해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전시기획비 명목의 약150만원~200만원) 입주 작가들은 외부로 떠돌며 생계와 창작촌 유지를 위해 노동의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2005년부터 전시기획팀(큐레이터쉽)이 가동되고 홈페이지운용과 레지던시프로그램 공모, 국제교류(일본의 창작촌)등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곳 오리에서 열리면서 지역 미술계에서는 처음 우려했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작가 촌과 전시공간과 함께하려는 관심의 목소리가 넘쳐 났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 창작지원 프로그램(레지던시 프로그램)

열악한 미술 시스템 안에서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신예 작가 지원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폭 넓은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부산의 문화 현실에서 볼 때 기업과 문화의 연결고리가 전무하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창작지원프로그램은 부산지역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통해 기업과 관에서의 지속적인 작가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미술의 새로운 활성화를 기대한다. 대중들은 현장 제작과정 및 그 결과물을 감상하는 양질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 아름다운오리길 프로그램

14번 국도 변에서 51번 국도 변까지(오리길이라 함)에 친환경적이고 생활에 활력적이며 재미 있는 입체 물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생활에서 예술 문화를 가까이 호흡하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공동창작촌내에서 3개월간 제작 후 설치) 폐쇄적 공간의 전시장을 벗어나 시민들이 좀 더 친근하게 미술을 접할 수 있고, 적극적 미술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미술의 고정관념을 넘어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 독립큐레이터展

신진 기획자 및 실험적 기획전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획전의 양적, 질적 향상을 기대하며 다양한 형태나 복합적 요소의 문화적 표현 등 어떠한 형태의 표현 일지라도 수용하며 기획자, 비평가의 발굴에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지역네트워킹워크숍 2005

서울의 공간인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에서 주최하는 “지역네트워킹워크숍2005”가 아트인오리에서 열렸다. 이 워크숍은 사루비아다방에서 선별된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서울의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아트인오리에서는 부산 지역의 작가들을 소개를 함으로써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사루비아다방의 기획에 부합하는 작가를 픽업하겠다는 취지도 함께 가지고 있어 아트인오리가 지역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문화예술의 향수 층이 서울 중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지역 토론 공동 워크숍으로 인해 중심에서 바라보는 지역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을 다시 바라보고,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인식되어 온 서울에서의 시각을 다시 검토하며 나아가 타 지역과의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경매전 (how much?)



년 중 1회 개최되며 4회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지역작가들의 다양한 현대미술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기회와 작품구매 기회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술애호가들의 저변확대와 화랑의 이익을 최소화 하여 일반인들에게 실질적 가격을 제공하여 다양한 콜렉터 층의 확대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아트인오리> 전시기획팀(6명)은 전시 작가를 위해 전시조성, 평문, 홍보, 인쇄물, 오픈세미나 등 일체를 담당하며, 창작지원팀 레지던시프로그램 입주 작가 공간과 오픈스튜디오(개인전)를 지원하고 현재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 술 공장을 재활용한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을 겸비한 <스페이스 치이호쿠>와 다양한 각도로 교류중이다. 입주 작가 외 지역작가 소개 및 전시지원 창작공간 교류, 지역비평가 교류 등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그 외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용되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어 발전적 요소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드웨어(공간)와 소프트웨어(인력) 그리고 정책 및 지원이 어떻게 조화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3. 새로운 출발 <오픈 스페이스 배>

현재 <아트인오리>에 거주하였던 창작촌 멤버중 6명과 전시공간(큐레이트샵4명)운영인력들은 토지주의 퇴거 통보로 새로운 환경을 개척해야하는 상황이다. 세입자로서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며, 퇴거를 통보받은 6명의 입주작가들과 전시공간 운영인력들은 새로운 공간을 찾아내게 되었다.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겠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공간을 현재 조성 중이며 명칭을 <오픈스페이스 배(Open space bae)>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아트인오리>의 전시기획팀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창작지원프로그램 및 독립큐레이터 지원 프로그램 및 여러 프로그램들이 <오픈스페이스 배>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간 <아트인오리>가 남긴 지역사회에서의 인식과 이미지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더 발전적 상황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새로이 조성되는 공간을 간략히 소개하면 지역 기업의 메세나 일환으로 약4만5천 평의 부지(자연녹지)를 5년간 무상제공 향후 재계약이 서면 계약된 상태이며 현재



공간 리노베이션 중이다. 도심과 시골의 경계점인 지역적 특성과 대단위 신도시에서 약5분(차량)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상업적 주변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 문화공간으로 운영과 활용이 가능한 곳이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2006년 8월부터 가용될 것이며 활발한 공동창작공간과 복합미술체험공간으로써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최근 미술환경개선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접하며, 창작스튜디오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지역작가들의 창작의욕과 작업여건 조성을 위해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파악하고 타 지역과의 변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어느 작가나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견딜 수 있어도, 특히 지역에 있어 무관심과 상대적 소외감은 감내하기 힘들다. 작가들이 사유하고 창조해내는 신성한 노동의 현장인 창작공간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곳 부산도 예외가 아닌 핵심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